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 60대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

혈당검사, 심전도검사 질환의심 나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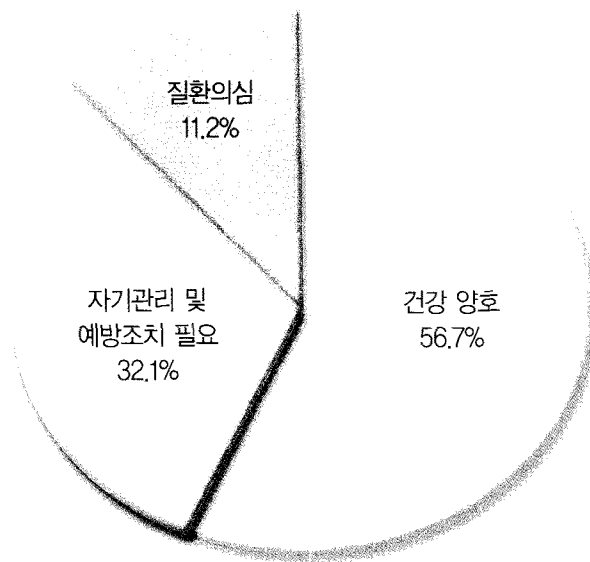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검진자는 22,571명으로 남성은 17,492명, 여성은 5,079명이다. 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근로자 중 48.5%(10,953명)에게서 질환의심이 나타났고 44.1%(9,957명)는 건강에 이상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였다. 나머지 0.2%(35명)에게는 건강 주의가 나타났고 건강 양호는 7.2%(1,626명)뿐이다.

혈당검사 받은 60대 43.3%에게 질환의심 나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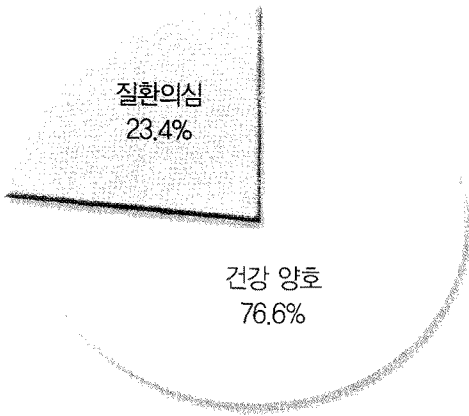
2008년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 검진자 중 혈당검사를 받은 22,519명을 살펴본 결과 43.3%는 혈당에 따른 질환의심이거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 그 가운데 11.2%(2,524명)는 혈당에 따른 질환의심이 나타났고, 32.1%(7,236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,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 건강 양호는 56.7%(12,759명)다.

성별로 살펴보면 혈당에 따른 질환의심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났다. 남성 총 17,446명 중 46.2%는 혈당에 따른 질환의심이거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 그 가운데 12.3%(2,139명)는 혈당에 따른 질환의심이 나타났고 33.9%(5,915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,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 건강 양호는 53.8%(9,392명)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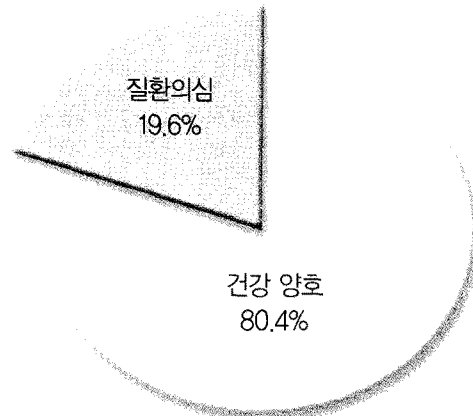
60대 직장인 혈당검사 유소견 현황



60대 남자 직장인 심전도검사 유소견 현황



60대 여자 직장인 심전도검사 유소견 현황



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양호하다. 여성 총 17,483명 중 74.9%(13,091명)는 건강 양호를 보였고 20.9%(3,663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,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, 4.2%(729명)에게 질환의심이 나타났다.

심전도검사 받은 60대 22.5% 질환의심 나타나

심전도검사를 받은 60세 이상 근로자 22,440명을 살펴본 결과 22.5%(5,052명)에게서 질환의심이 나타났으며, 건강 양호는 77.5%(17,388명)이다.

성별로 살펴보면 심전도에 따른 질환의심은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. 남성 검진자 17,388명 중 23.4%(4,062명)가 질환의심으로 나타났고 건강 양호는 76.6%(13,326명)다.

여성 검진자 5,052명 중 80.4%(4,062명)는 건강 양호 결과가 나타났고 19.6%(990명)에게는 질환의심이 나타났다.

심전도검사는 심장의 근육세포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수축할 때마다 미량의 활동 전류를 일으키는 전류의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다. MEDYCHECK

심전도검사로 알 수 있는 것 }



심전도검사로 심장과 혈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다. 조직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허혈, 심장 근육이 손상된 심근경색을 알 수 있고 심장의 전기 전도체계의 기능 장애도 알 수 있다.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심판막질환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낭의 염증이 일어나는 심낭염도 파악할 수 있다. 고혈압이나 출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이유로 심장이 정상보다 커진 심장비대 현상도 알아낼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후 경과 관찰이나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하게 사용한다.